

1.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노예제도를 운명에 따른 개인의 불행으로 생각했던 로마사회가 등장한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의 개인들은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사회제도에 순응하며 맡은 의무에 대한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각자의 운명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는 출유하려는 남편과 그에 반발하는 아내가 등장한다. 남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이 그동안 희생되었기 때문에 절연을 선언하는 아내는 타인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나 사회제도가 개인의 행복과 상충할 경우 그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다)는 공리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적 혹은 사적인 행위가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때만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위를 평가할 때는 전체 구성원의 행복의 총합이 더욱 큰 행위가 승인된다. 따라서 타인의 행복의 양이 개인의 행복의 양보다 충분히 커서 전체의 행복이 커진다면 타인의 행복이 더 중요시되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사회제도를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가)는 사회제도에 순응하여 개인의 행복을 그 안에서 찾으려 하지만 (나)는 사회제도가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시문 (나)와 (다)는 타인의 행복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는 타인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립할 경우 그에 맞서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다)는 타인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보다 커서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면 타인의 행복이 보다 더 중요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제시문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만일 타인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에 등장한 아내가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하였듯이 그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평등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공리주의에 따라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인 공동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제시문 (다)는 타인의 행복의 양이 개인의 행복의 양보다 더 커서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일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조적인 관점에 따라 각각의 제시문이 제시문 (라)에 나타난 국가군 사이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국가군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행복의 평균은 비교적 낮지만 표준편차가 낮은 C가 B에 비하여 이상적인 국가군이다. 표준편차가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가 평균에 대하여 비교적 좁게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타인의 행복의 양과 개인의 행복의 양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C가 더욱 이상적인 국가군일 것이다.

한편, 공동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B가 C보다 더욱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동체의 행복의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복의 평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행복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제시문 (다)는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가 평균에 대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는 뜻을 가지는 B의 비교적 높은 표준편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